

##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sup>†</sup>

정민경

송미경<sup>‡</sup>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자존감 안정성의 변화 양상을 다각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단일요인으로 설명하였던 자존감 안정성을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자기-가치 안정성 3가지 구성개념으로 확장하였고 문헌 연구·기존 척도 분석, 전문가 면담을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 성인(만 20세-만 64세) 22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항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거쳐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26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집단 A(260명)와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위한 표본 집단 B(250명)로 나누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3요인 구조의 14문항이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 14문항에 대한 점수분포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자존감 안정성, 척도 개발, 타당화

<sup>†</sup>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8)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미경,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Tel: 02-970-5564, E-mail: songdouce@swu.ac.kr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라는 자기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한 개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라는 틀로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Rosenberg(1985)는 자존감을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 하였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 수용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존감은 한 개인의 일상 경험들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심리적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다(Kernis, 2003).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자존감 수준으로만 판단할 때 한계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자존감의 높낮이 수준만이 아닌 자존감 안정성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Kernis, 2003; Zeigler-Hill, 2006). Noser와 Zeigler-Hill (2014) 또한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안정성을 모두 고려할 때, 자존감이 높더라도 굳건한 자존감인지 취약한 자존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자존감 안정성(self-esteem stability)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반대 개념인 자존감 불안정성은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동 정도’로 정의된다(Kernis, 2005; 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이것은 자존감의 수준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사건에 처했을 때,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더 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Kernis et al., 1998). 또한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

존감 안정성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였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뿐만 아니라 높지만 불안정한 자존감은 심리적 부적응 중 하나인 과도한 자기애를 초래하기도 했다(Rhodewalt & Morf, 1998; Zeigler-Hill, 2006). 또한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대감이나 분노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Kernis, Brockner, & Frankel, 1989). 이처럼 자존감 안정성을 통해, 지각된 자기 가치감을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스스로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Rasmussen, Willingham, & Glover, 1996),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외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gold standard’방식이 있다(Chabrol, Rousseau, & Callahan, 2006; Kernis et al., 1993). 5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자존감 수준을 반복 측정하고 10번의 반복 측정된 값의 표준편차를 통해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한다. gold standard는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동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측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순간적인 상황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장재원, 2009). 또한 매일의 자존감 상태를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부 사건이나 평가적인 상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즉, 평소 자존감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통제된 채로 측정될 수 있다(Howard, 2017). 이러한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존감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단일 척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국내에서는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자존감 안정성을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로 정의하였다(장재원, 2009). 국외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을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화 정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면,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존감 안정성을 자기가 치감이 주위 환경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정도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에서도 자존감 안정성이 자존감과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며, 개인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주요 개념이라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안정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 또한 필요하다. 현재까지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는 장재원(2009)이 고안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만 존재한다. 그러나 자존감 안정성을 단일요인으로 측정하고 있는 기존 척도는 자존감의 변동성을 스스로 보고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느끼는 자존감 안정성 변화 양상을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지각하는 자존감 변동성만을 측정하고 있을 뿐, 타인의 평가와 주변 환경 변화에 자기 가치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존감 안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쉽게 받는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지 판

단할 수 있는 문항을 함께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의 발달 과정에서 아동기에는 자존감 안정성이 낮지만 점차 안정성이 증가하여 포물선을 그리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Robins & Trzesniewski, 2005). 이후에 Kuster와 Orth(2012)는 자존감 안정성 수준이 성격 5요인 특성과 유사하게 연령의 증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발달과정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특히 자존감 안정성 수준은 40세에서 49세의 성인에게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노년기에도 자존감 안정성 수준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해도 한 개인의 자존감 안정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안정성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국내 척도는 대학생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과 타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에게 일반화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존감 안정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단일 요인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했던 것에서 주위 환경의 변화, 타인의 평가, 지각된 자존감 변동성 같은 구성개념들을 토대로 자존감 안정성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 자존감 안정성 구성요인

Greenier, Kernis와 Waschull(1995)은 개인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자기가치에 대한 순간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존감의 수준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자존감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가치에 대한 정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가적인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고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었다(Kernis et al., 1998). 일반적으로 평가적인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위 환경의 변화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적 사건이나 내적으로 잠깐 생성되는 목표의식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진 경우에는 자존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적응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Kernis, Paradise, Whitaker, Wheatman, & Goldman, 2000). 더 나아가 자존감이 불안정할수록 외부의 변화와 타인의 평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몰두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행동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Kernis,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존감 변동의 실제 패턴을 측정하고 주관적 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주위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쉽게 받는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을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존감 안정성을 단일요인이 아닌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자기-가치 안정성 영역으로 구성개념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존감이 안정적이면 자기 가치감이 외부 평가나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Kernis et al., 2000).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주위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판단은 자존감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든다. 반면,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개인의 심리적 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주경숙, 2011; Ryff, 1989)을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 자존감이 급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여기기보다 (Heydayati, Dugas, Buhr, & Francis, 2003),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Chorpia & Barlow, 1998). 또한 주변 환경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Ionescu, 2012).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적인 인식은 개인의 가치와 심리적 조건에 맞는 환경요인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변화하는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유안진, 이정숙, 김정민, 2005).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Johnson(1998)은 타인의 승인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자존감 안정성은 변한다고 하였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쓰도록 만든다(김미령, 2001). 이들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Gibbons & Buunk, 1999). 그러나 그럴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며, 과도한 불만이 생기고 결국 자기 가치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손은정, 양난미, 2009).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을 때, 자신과 비슷한 의견이나 능력을 지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Festinger, 1954).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시도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 가치감을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타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 이는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자존감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이 낮으면, 타인의 긍정적 수용이나 칭찬보다 거절이나 부정적일 것 같은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된다(Greenier et al., 1999). 이로 인해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해지고 다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자기-가치 안정성

자존감이 불안정하면, 자기 가치감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복을 보인다(Kernis, Lakey, & Heppner, 2008). 자신에 대해 때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순간 부정적으로 바뀌는

자기 가치감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Kernis, 2005). 또한, Kernis(2005)는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들도 자신의 자기 가치감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려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위태롭다고 느끼기 쉽다. 늘 자기평가적인 단서에 집중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거나 자존감과 관련 없는 상황까지도 자기 가치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주목한다(Greenier et al., 1999). 이처럼 불안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적인 사건이나 내적으로 잠깐 생성되는 목표의식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 취약한 자기 가치감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적응문제를 초래하게 된다(Kernis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 변동정도를 자기-가치 안정성으로 명명하여,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으로 보고자 하였다.

## 방법

###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임의표집 방법으로 표집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안내문을 읽게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예비연구는 성인 총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예비연구 대상자 수는 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우,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탁진국, 2007). 그러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항의 5배수의 표본, 적어도 3배수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 따라 대상자 수를 늘려 진행하였다. 남성은 95명(42.8%), 여성은 127명(57.2%)이었으며, 만20-29세는 32명(14.4%), 만 30-39세는 44명(19.8%), 만 40-49세는 52명(23.4%), 만 50-59세는 53명(23.9%), 만 60-64세는 41명(1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집단 A와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집단 B로 나뉘어서 진행하였다. 집단 A는 총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한 페이지 이상 응답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10명을 제외한 25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성은 112명(44.8%), 여성은 138명(55.2%)이었으며, 만 20-29세는 61명(24.4%), 만 30-39세는 57명(22.8%), 만 40-49세는 55명(22.0%), 만 50-59세는 41명(16.4%), 만 60-64세는 36명(14.4%)이었다. 집단 B는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한 페이지 이상 응답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24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성은 112명(45.5%), 여성은 134명(54.5%)이었으며, 만 20-29세는 58명(23.6%), 만 30-39세는 58명(23.6%), 만 40-49세는 54명(22.0%), 만 50-59세는 41명(16.7%), 만 60-64세는 35명(14.2%)이었다.

### 측정 도구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예비연구용).**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하여 일련의 문항개발 및 내

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된 44개 문항의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 ‘별로 아니다’=2, ‘약간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 그렇다’=5)로 평가한다.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본연구용).** 예비연구 결과 선정된 26개 문항의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5점 리커트 척도형식이다.

**자기-안정성 척도(RSSS).** Rosenberg(1979)가 개발한, 단일시행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는 자기-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 Scale: SSS)이다. 그날그날 스스로의 자존감 변동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후, Marsh(1993)에 의해 문항은 유사하나 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리커트식 척도로 보완되었고, 양현정(2002)이 번안하였다. 자기-안정성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형식이다. 본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72로 적절하였다.

**조건부 자존감 척도(CSE).** Paradise와 Kernis(1999)가 성공적인 수행 기대나 주변의 인정을 받는 상황에 의존하는 자존감을 가졌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고, 도레미(2005)가 번안하였다.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항상 그렇다’ 5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8로 적절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 개인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Gibbons, Buunk(1999)가 개발한 척도이며, 최윤희(2003)가 번안하였다. 능력 관련 6문항과 의견 관련 5문항으로 총 2개요인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항상 그렇다’ 5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으로 적절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 척도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 척도 8문항, 개인적 성장 척도 8문항, 삶의 목적 척도 7문항, 긍정적인 대인 관계 척도 7문항, 자아수용 척도 8문항으로 총 6가지 요인의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WBS의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항상 그렇다’ 5점)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요인의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적절하였다.

**자존감 척도(RSES).** Rosenberg(1965)가 개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하였다. 단일 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항상 그렇다’ 5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5로 적절하였다.

**단축형 간이진단검사(BSI-18).** Derogatis

(2001)가 개발한 SCL-90-R의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를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2012)이 한국판 척도로 타당화 하였다. BSI-18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도구로서, Derogatis(2001)가 SCL-90-R의 증상차원척도 9가지 중 3가지 하위척도(우울, 신체화, 불안)에 해당하는 각 6문항씩을 추출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심하다’ 5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우울 .87, 불안 .89로 적절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 Akhtar와 Thompson(1982)의 이론을 토대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 분석으로 5개의 하위 척도를 도출하여, 이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 요인과 내현적·외현적 자기에의 공통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고유 요인 3개는 각각 목표 불안정 9문항, 소심/자신감부족 8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이며, 공통 요인 2개는 각각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심하다’ 5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94로 적절하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전경규,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

성 분노 표현 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측정하는데 분노 경험은 특성분노 10문항과 상태분노 10문항이며, 분노표현은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으로 구성된 총 44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 10문항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항상 그렇다’ 4점)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특성분노 .85, 역기능적 분노표현 .85로 적절하였다.

## 연구 절차

### 예비문항 개발 및 검토

예비문항 개발을 위해 먼저,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 사고와 행동 특성들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중심개념들을 선별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한 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적응적인 사고 전환 가능(Dennis & VanderWal, 2010)’, ‘환경적 요구에 따라 자아 통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 · 심리적 균형 유지(Block & Kremen, 1996)’ 등의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에는 ‘주의 초점이 타인에게 주어짐(김나래, 이기학, 2012)’, ‘사회적 기대에 민감하여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손은정, 양난미, 2009)’ 등의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반대되는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가치 안정성에는 ‘부정적 사건을 내적 · 안정적 · 전반적으로 설명(Carver & Ganellen, 1983)’, ‘자기 가치감에 대해 매우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Kernis, 2005)’ 등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임상심리전문가 1급과 상담심리전문가 1급 소지자 1인에게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정의, 사고와 행동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으며, 연구자가 앞에서 정리한 중심개념들을 검토 받았다. 이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인식’, ‘개인의 가치에 맞는 요인 선택’, ‘긍정적 수용’, ‘효율적 이용’ 등의 주요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은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을 통해 증명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 등의 특징이 있었다. 자기-가치 안정성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자기 가치감이 주위 환경 변화나 타인,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정서나 사고 변화 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과 관련 있는 척도들을 검토하였고, 적절한 문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후 전문가 2인의 1차 내용타당도, 전문가 2인 및 준전문가 6인의 2차 내용타당도, 본 연구 대상인 성인 4명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15문항,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15문항, 자기-가치 안정성 14문항



으로 총 44개의 예비 문항이 확정되었다.

### 예비연구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성인 총 222명을 대상으로 44개 문항의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 척도를 실시하였다.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 문항의 적절성과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사용하여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신뢰도(Cronbach  $\alpha$ )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구조와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각회전(Oblique)방식의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 Mplus 7.4를 사용하였다.

### 본연구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집단 A와 확인적 요인 분석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집단 B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였으며, 표본 집단 A는 총 260명 중 250명, 표본 집단 B는 총 250명 중 24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항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신뢰도(Cronbach  $\alpha$ )가 검토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예비연구에서 결정된 요인 구조를 재확인하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3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 Mplus 7.4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

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SPSS 21.0이 사용되었다.

## 결 과

### 예비연구 결과

#### 문항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예비 문항으로 선정된 44개 문항들의 평균은 최소 3.02에서 최대 4.12로 적절한 수준이었고, 표준편차는 최소 .67에서 최대 1.06이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5개의 문항(‘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행동하기에 앞서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30 이하로 낮은 상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한 후 제거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문항 간 상관에서 상관계수가 .60 이상인 5개의 문항(‘나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변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비교한다’)은 제거하였지만, ‘나는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평가한다’ 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 나의 자존감은 변한다’ 는 탐색적 요인분석 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최

중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총 5문항이 제거되었으며, 39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구인타당도 분석

KMO 지수는 .90, Bartlett 검정 지표는 3922.97,  $p < .001$ , 로 나타나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었다. 요인수호 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40.09%를 설명하는 고유치가 1보다 큰 3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도 요인 수 3개 다음에서 꺾임을 보인 후부터는 고유값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3요인까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3요인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2$ , RMSEA, CFI, TLI, SRMR을 참조하였다.  $\chi^2$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살펴보았다.  $\chi^2$  대신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RMSEA, CFI, TLI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 SRMR은 .10이하가 적절하다는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Vandenberg & Lance, 2000;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에서 재인용). 분석결과, 1요인의 모형적합도는 RMSEA와 SRMR이 .10 이상, CFI와 TLI는 너무 낮아 적절하지 않았다,  $\chi^2=1089.99$ ,  $df=299$ , RMSEA=.11(90% 신뢰구간 = .10-.12), CFI=.65, TLI=.62, SRMR=.12,  $p < .001$ . 3요인 모형의 RMSEA는 .05(90% 신뢰구간 = .04-.06), CFI는 .94, TLI는 .93, SRMR은 .04로 2요인의 모형적합

도 보다 좋은 적합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가정한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후 각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너무 낮거나 다른 요인과 이중으로 겹치면서 교차 부하량이 .40을 초과하는 13개 문항을 검토하여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26문항을 본조사에서 검토할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인 1은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요인 2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요인 3은 '자기-가치 안정성'으로 명명하였다.

### 본연구 결과

#### 문항 분석

예비연구 결과 선정된 26문항들의 각 평균은 최소 2.86에서 최대 3.86으로 적절한 수준이었고, 표준편차는 최소 .75에서 최대 1.05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30 이하로 낮은 상관을 보여 제거하였다. 문항 간 상관에서  $\alpha_1$ 과  $\alpha_2$ 는 .64로 상관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탐색적 요인분석 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된 25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KMO 값은 .91, Bartlett 검정 지표는 2755.84로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

라고 할 수 있었다. 요인수효 분석 결과, 요인1의 고유값은 8.63, 요인2는 2.76, 요인3은 1.19, 요인4는 1.12로 고유값이 1보다 크며 전체 변량의 54.76%를 설명하는 4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의 스크리 도표(screen plot)를 통해서도 요인 수 3개 다음에서 꺾임을 보인 후부터 고유값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3요인까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3요인

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3요인 모형의 RMSEA는 .06(90% 신뢰 구간 = .05-.07), CFI는 .92, TLI는 .89, SRMR은 .04로 가장 적절한 적합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각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을 검토하여 다른 요인과 부하량이 이중으로 겹치거나 요인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 결과 o3, s4, s5, s8, o10, o13, e14, o19, o25 문항이 삭제되었다. 요인 1(주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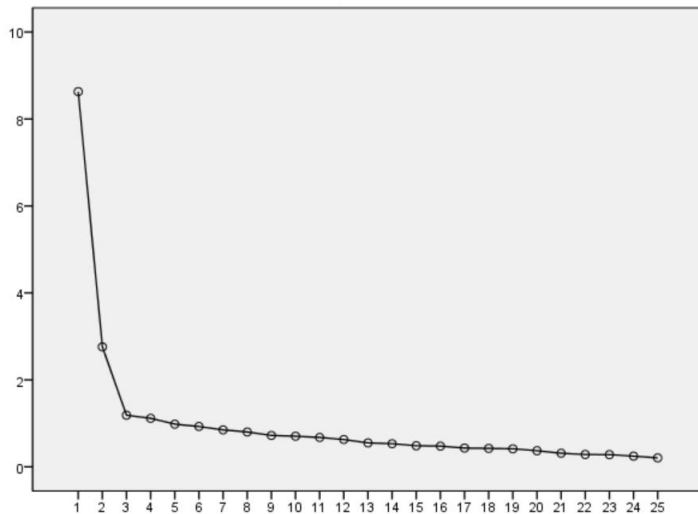


그림 1. 예비 25문항에 대한 Scree Plot

표 1. 예비척도 2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 요인 | $\chi^2$  | df  | $\Delta\chi^2$ | $\Delta df$ | RMSEA [90% CI] | CFI | TLI | SRMR |
|----|-----------|-----|----------------|-------------|----------------|-----|-----|------|
| 1  | 921.22*** | 275 |                |             | .10 [09-.10]   | .75 | .73 | .09  |
| 2  | 526.01*** | 251 | 395.20***      | 24          | .07 [06-.07]   | .89 | .87 | .05  |
| 3  | 438.05*** | 228 | 87.97***       | 23          | .06 [05-.07]   | .92 | .89 | .04  |

\*\*\* $p < .001$ .

경에 대한 통제력)은 6문항으로,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51,  $p < .05$ , 에서 최대 .66,  $p < .05$ , 로 적절하였다. 요인 2(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는 4문항으로,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46,  $p < .05$ , 에서 최대 .84,  $p < .05$ , 로 적절하였다. 요인 3(자기-가치 안정성)은 6문항으로,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56,  $p < .05$ , 에서 최대 .77,  $p < .05$ , 로 적절하였다. 따라서 최종 16문항이 선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선정된 16문항에 대

표 2 성인 자존감 안정성 예비척도 25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3 요인  |      |      |
|-----|-------|------|------|
|     | 1     | 2    | 3    |
| s5  | .32*  | .02  | .25  |
| e6  | .66*  | .07  | .02  |
| e7  | .61*  | .02  | .12  |
| e16 | .55*  | .06  | -.04 |
| e17 | .51*  | -.03 | .31* |
| e21 | .58*  | .10  | .04  |
| e23 | .63*  | .14  | -.04 |
| o1  | -.03  | .84* | .01  |
| o2  | .09   | .50* | .29* |
| o15 | -.13  | .53* | .01  |
| o25 | .03   | .41* | .48* |
| o26 | -.01  | .46* | .15  |
| o3  | .27*  | .27* | -.10 |
| s4  | .06   | .16  | .48* |
| s8  | .44*  | -.10 | .31* |
| s9  | -.10  | .03  | .73* |
| o10 | .00   | .02  | .67* |
| s11 | .05   | -.10 | .77* |
| e12 | .00   | -.26 | .70* |
| o13 | -.15* | .60* | .69* |
| e14 | .22*  | -.01 | .53* |
| s18 | -.04  | -.07 | .73* |
| o19 | -.10  | .23  | .54* |
| s20 | .01   | .18  | .69* |
| s24 | -.07  | .06  | .56* |

\*e: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o: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s: 자기-가치 안정성

\* $p < .05$ .

한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chi^2=218.38$ ,  $df=101$ ,  $RMSEA=.07(90\%$  신뢰구간 = .06-.08),  $CFI=.90$ ,  $TLI=.89$ ,  $SRMR=.08$ ,  $p<.001$ , 로 나타났다.  $RMSEA$ 는 .08이하,  $CFI$ 는 .90이상,  $SRMR$ 은 .10이하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지만,  $TLI$ 는 .90 이하로 그 값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beta$ )과 수정지수(MI)를 검토하여 e16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e12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종합해볼 때, 일상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자기 가치감 변동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 2문항이 제거되어, 요인 1은

5문항, 요인 2는 4문항, 요인 3은 5문항씩 최종 14 문항이 확정되었다.

수정된 14문항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chi^2=149.72$ ,  $df=74$ ,  $RMSEA=.06(90\%$  신뢰구간 = .05-.08),  $CFI=.93$ ,  $TLI=.92$ ,  $SRMR=.06$ ,  $p<.001$ .  $CFI$ ,  $TLI$  모두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RMSEA$ 와  $SRMR$ 도 이전 16문항 모형보다 적절하였다. 또한 모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beta$ )을 확인한 결과, 관측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었다.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은 .18,  $p<.01$ ,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은 .39,  $p<.01$ , 요인 2와 요인 3의 상관은 .68,  $p<.01$ , 로 유의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비표준화 | 표준오차(S.E.) | 표준화( $\beta$ ) |
|---------------------|------|------------|----------------|
| 1요인(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            |                |
| e6                  | 1.00 | -          | .51***         |
| e7                  | 1.13 | .17        | .56***         |
| e17                 | 1.21 | .18        | .66***         |
| e21                 | 1.47 | .20        | .80***         |
| e23                 | 1.36 | .19        | .79***         |
| 2요인(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            |                |
| o1                  | 1.00 | -          | .72***         |
| o2                  | 1.22 | .11        | .82***         |
| o15                 | .59  | .10        | .41***         |
| o26                 | .79  | .11        | .52***         |
| 3요인(자기-가치 안정성)      |      |            |                |
| s9                  | 1.00 | -          | .64***         |
| s11                 | .96  | .11        | .66***         |
| s18                 | .55  | .09        | .46***         |
| s20                 | 1.29 | .13        | .78***         |
| s24                 | .93  | .11        | .63***         |

\*e: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o: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s: 자기-가치 안정성

\*\*\* $p<.001$ .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신뢰도 검증

최종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은 최소 .36에서 최대 .7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84로 양호하였다.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신뢰도는 .80이었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신뢰도는 .70이며, 자기-가치 안정성 신뢰도는 .77이었다.

###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분석 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심리적 안녕감 척도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 척도(PWBS)와 .58로 유의한 정적 상관,  $p < .01$ , 을 나타낸 반면,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와는 -.14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었다,  $p < .05$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은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와 -.69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p < .01$ . 자기-가치 안정성은 조건부 자존감 척도(CSE)와 -.68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었으며, 자기-안정성 척도(RSSS)와 .59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p < .01$ .

### 준거타당도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 개념과 관련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자존감,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존감 안정성 전체는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과는 모두 유의한

표 4.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

|                | PWBS         | INCOM         | CSE           | RSSS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b>.58**</b> | <b>-.14*</b>  | <b>-.32**</b> | <b>.38**</b>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b>.31**</b> | <b>-.69**</b> | <b>-.65**</b> | <b>.44**</b> |
| 자기-가치 안정성      | <b>.56**</b> | <b>-.65**</b> | <b>-.68**</b> | <b>.59**</b> |

\*PWBS: 심리적 안녕감 척도(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Ryff, 1989)  
 INCOM: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최윤희, 2003; Gibbons & Buunk, 1999)  
 CSE: 조건부 자존감 척도(도레미, 2005; Paradise & Kernis, 1999)  
 RSSS: 자기-안정성 척도(양현정, 2002; Marsh, 1993; Rosenberg, 1979)

\* $p < .05$ , \*\* $p < .01$ .

표 5. 준거타당도 검증 결과

|                | 자존감          | 우울            | 불안            | 내현적 자기에       | 특성 분노         | 역기능적 분노표현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b>.61**</b> | <b>-.33**</b> | <b>-.27**</b> | <b>-.45**</b> | <b>-.28**</b> | <b>-.28**</b>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b>.33**</b> | <b>-.31**</b> | <b>-.30**</b> | <b>-.62**</b> | <b>-.34**</b> | <b>-.36**</b> |
| 자기-가치 안정성      | <b>.61**</b> | <b>-.45**</b> | <b>-.40**</b> | <b>-.76**</b> | <b>-.44**</b> | <b>-.47**</b> |
| 자존감 안정성        | <b>.68**</b> | <b>-.47**</b> | <b>-.42**</b> | <b>-.78**</b> | <b>-.45**</b> | <b>-.48**</b> |

\*\* $p < .01$ .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하위요인들 모두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 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자존감 안정성의 준거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 개념과 심리적 부적응 변인들과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부적응 변인이, 독립변인으로는 자존감 안정성 및 각 하위요인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우울,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은 내현적 자기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가치 안정성은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역기능적

표 6. 준거변인에 대한 각 요인 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변인                     | 비표준화 계수 |      | $\beta$ | $t$      |               |
|------------------------|---------|------|---------|----------|---------------|
|                        | B       | 표준오차 |         |          |               |
| <b>종속변인: 우울</b>        |         |      |         |          |               |
| (상수)                   | 24.90   | 1.80 |         | 13.83***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28    | .09  | -.19    | -3.04**  | $R^2=.23,$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07    | .14  | -.04    | -.53     | $F=23.96***$  |
| 자기-가치 안정성              | -.49    | .12  | -.35    | -4.15*** |               |
| <b>종속변인: 불안</b>        |         |      |         |          |               |
| (상수)                   | 20.37   | 1.67 |         | 12.19***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18    | .09  | -.13    | -2.09    | $R^2=.18,$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12    | .13  | -.08    | -.95     | $F=17.67***$  |
| 자기-가치 안정성              | -.39    | .11  | -.30    | -3.51**  |               |
| <b>종속변인: 내현적 자기에</b>   |         |      |         |          |               |
| (상수)                   | 212.14  | 5.83 |         | 36.42***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1.38   | .30  | -.20    | -4.67*** | $R^2=.63,$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1.79   | .44  | -.22    | -4.05*** | $F=137.25***$ |
| 자기-가치 안정성              | -3.57   | .39  | -.53    | -9.28*** |               |
| <b>종속변인: 특성분노</b>      |         |      |         |          |               |
| (상수)                   | 30.10   | 1.72 |         | 17.55***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19    | .09  | -.14    | -2.15*   | $R^2=.21,$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18    | .13  | -.11    | -1.38    | $F=137.25***$ |
| 자기-가치 안정성              | -.42    | .11  | -.31    | -3.68*** |               |
| <b>종속변인: 역기능적 분노표현</b> |         |      |         |          |               |
| (상수)                   | 45.66   | 2.29 |         | 19.93*** |               |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23    | .12  | -.12    | -1.98*   | $R^2=.24,$    |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18    | .17  | -.08    | -1.05    | $F=25.35***$  |
| 자기-가치 안정성              | -.68    | .15  | -.37    | -4.51*** |               |

\*  $p < .05$ , \*\*  $p < .01$ , \*\*\*  $p < .001$ .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구학적 특성과 자존감 안정성**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이 자존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더미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

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자존감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연령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존감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과 자존감 안정성의 각 하위요인을 검토한 결과, 남성과 만40-49세가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연령은 모

표 7.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변인                          | 비표준화 계수 |      | $\beta$ | $t$      |                         |
|-----------------------------|---------|------|---------|----------|-------------------------|
|                             | B       | 표준오차 |         |          |                         |
| <b>종속변인: 자존감 안정성</b>        |         |      |         |          |                         |
| (상수)                        | 43.54   | .99  |         | 43.90*** |                         |
| 성별더미(남성)                    | .39     | .90  | .03     | .43      |                         |
| 연령더미1(만30-39세)              | 3.06    | 1.30 | .18     | 2.36*    | $R^2=.07, F=3.68^{**}$  |
| 연령더미2(만40-49세)              | 4.46    | 1.32 | .26     | 3.39**   |                         |
| 연령더미3(만50-59세)              | 5.13    | 1.42 | .27     | 3.62***  |                         |
| 연령더미4(만60-64세)              | 4.40    | 1.49 | .22     | 2.96**   |                         |
| <hr/>                       |         |      |         |          |                         |
| <b>종속변인: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b>  |         |      |         |          |                         |
| (상수)                        | 16.41   | .45  |         | 36.72*** |                         |
| 성별더미(남성)                    | .94     | .41  | .15     | 2.32*    |                         |
| 연령더미1(만30-39세)              | .06     | .59  | .01     | .10      | $R^2=.05, F=2.41^*$     |
| 연령더미2(만40-49세)              | 1.42    | .59  | .19     | 2.39***  |                         |
| 연령더미3(만50-59세)              | .43     | .64  | .05     | .67      |                         |
| 연령더미4(만60-64세)              | .42     | .67  | .05     | .62      |                         |
| <hr/>                       |         |      |         |          |                         |
| <b>종속변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b> |         |      |         |          |                         |
| (상수)                        | 11.80   | .37  |         | 32.21*** |                         |
| 성별더미(남성)                    | -.58    | .33  | -.11    | -1.75    |                         |
| 연령더미1(만30-39세)              | 1.00    | .48  | .16     | 2.09*    | $R^2=.09, F=4.68^{***}$ |
| 연령더미2(만40-49세)              | .98     | .49  | .15     | 2.02*    |                         |
| 연령더미3(만50-59세)              | 2.05    | .52  | .29     | 3.91***  |                         |
| 연령더미4(만60-64세)              | 1.90    | .55  | .25     | 3.45**   |                         |
| <hr/>                       |         |      |         |          |                         |
| <b>종속변인: 자기-가치 안정성</b>      |         |      |         |          |                         |
| (상수)                        | 15.33   | .45  |         | 33.98*** |                         |
| 성별더미(남성)                    | .03     | .41  | .00     | .07      |                         |
| 연령더미1(만30-39세)              | 2.00    | .59  | .26     | 3.38**   | $R^2=.09, F=4.45^{**}$  |
| 연령더미2(만40-49세)              | 2.06    | .60  | .26     | 3.45**   |                         |
| 연령더미3(만50-59세)              | 2.66    | .65  | .30     | 4.12***  |                         |
| 연령더미4(만60-64세)              | 2.09    | .68  | .22     | 3.08**   |                         |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8.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 요인 별 점수 분포

|          | 자존감 안정성 |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 자기-가치 안정성 |
|----------|---------|---------------|----------------|-----------|
| <i>n</i> | 246     | 246           | 246            | 246       |
| 평균       | 46.90   | 17.29         | 12.60          | 17.01     |
| 표준편차     | 7.14    | 3.18          | 2.66           | 3.27      |
| 최소값      | 25      | 9             | 4              | 7         |
| 최대값      | 67      | 25            | 19             | 25        |

든 연령대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과 자기-가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점수분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14문항)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하위요인 별 점수분포는 표 8과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자존감 안정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모형을 확인하였고, 26개의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이후 본연구 결과, 예비연구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3요인 척도 모형이 나타났으며, 요인 1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6문항, 요인 2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4문항, 요인 3 자기-가치 안정성 6문항으로 총 16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3요인 구조의 척도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246명의 설문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14문항의 3요인 구조가 적합한 척도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대한 통

제력 5문항,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4문항, 자기-가치 안정성 5문항으로 총 14문항의 최종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가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최종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요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안정성 요인, 자기-가치 안정성 요인이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반영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개념과 자존감,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과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자기개념의 하위 요소로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고현석 등,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과 유의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의 상관이 높지 않았다는 Kernis(1993)와 Kernis, Grannemann과 Barclay(199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자존감 안정성은 불안,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존감 안정성이 우울, 불안에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변인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자기 개념의 요소라고 한 고현석 등(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osenberg(1979)와 Kernis 등(1989)도 자존감 안정성은 우울, 불안과 관련 있는 성격특성이라고 언급하였다. Franck, Raedt, Dereu와 Abbeele(2007)는 통제 집단과 임상 집단의 비교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은 우울 및 우울의 취약성과 관련 있으며, 우울의 취약성을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의 수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존감 안정성은 내현적 자기에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2012)의 평가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자존감 변화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긍정적·부정적 피드백에 따라 가장 큰 자존감 변동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자존감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안정성은 특성분노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주위 환경의 변화나 평가에 취약한 자기 가치감은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특성분노 수준이 낮았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현과 분노억제를 더 적게 사용했다(이슬, 2014; Kernis et al., 1989). 특히 자존감이 높지만 불안정한 사람은 긍정적이지만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는다 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할 경향이 더 높다. 즉, 분노는 이들에게 자신의 취약한 가치감을 지킬 수 있

는 자기-보호적인 기능을 한다(Kernis et al., 1989; Turner, 1968).

준거타당도 검증을 통해, 자존감 안정성뿐만 아니라 각 하위 구성개념도 자존감,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특성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요 변인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고려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 즉, 자존감 안정성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심리적 기능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외부 환경적 요소나 타인의 평가에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자존감 안정성의 의미를 모두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gold standard'의 반복측정을 통해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는 경험적인 방식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계점이 많아 자존감 안정성 연구에 활발히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위 환경 요소와 타인에의 반응을 통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느끼는 자존감 안정성의 변화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다각적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단일 척도로 측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인 경험하는 시간, 환경, 타인에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경험적 측정방식처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임상 장면에서 만나는 환자나 내담자들이 외부환경, 타인, 자기 내적 표상 등 어느 부분이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존감 안정성은 연령에 따라 전반적인 양상을 보이는 한 개인의 특성, 즉 개인차 변인으로,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자존감 안정성 여부는 성격특성처럼 그 수준이 연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이에 성인 전 연령의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함에도 기존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들만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전체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존감 안정성을 한 개인의 특성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우울, 불안, 내현적자기애와 자존감 안정성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자존감 안정성과 특성분노,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련성도 밝힘으로써 자존감 안정성 여부에 따라 분노를 느끼는 과정과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척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자존감 안정성 양상에 따라 초래되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어 임상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자존감 척도를 가지고 하루 2번씩 5일 동안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여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는 'gold standard' 방법과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gold standard'는 외국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자존감 안정성 측정 방법으로 Kernis 등(1989)에 의해 고안된 방법이다. 현재까지 자존감 안정성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명 이상의 표본 집단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를 이러한 경험적 측정방법과 검증한다면 한층 더 완성된 타당도가 검증될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gold standard'와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표집의 한계성이 있다. 본 척도를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더 넓은 개념의 표집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추후 정신병리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진 임상집단의 자존감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각각의 정신병리가 자존감 안정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자존감 안정성의 구성요인 중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를 치료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인과 자기개념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는 청소년 자존감 안정성 척도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 안정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외에

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추가로 확인한다면, 자기보고식 검사에 대한 측정의 일관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점수분포 외에 척도의 기준 점수(cut-off score) 산출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기준 점수를 설정하고, 표준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척도의 기준 점수가 정해진다 면 수검자의 자존감 안정성 정도를 기준 점수와 판단 기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와 임상 장면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역채점 문항인 부정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방법 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도의 방법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후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부정문항의 방법 효과를 반영하는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bi-factor 모형이나 SESM 모형에 대한 탐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자존감 안정성의 3요인 구조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김나래,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령 (2011). 공적 자의식과 대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 성취의 매개 효과와 조절효과. *상담학 연구*, 12(2), 721-738.
- 도레미 (2005). 자기애와 조건부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자기 기만적 고양을 통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 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손은정, 양남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왜곡 매개 역할. *상담학연구*, 10(2), 1245-1258.
- 양현정 (2002).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및 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이정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슬 (2014). 진정한 자존감과 가장된 자존감 간의 편견, 분노, 공격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장재원 (2009).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주경숙 (2011).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요인 인성검사와의 관련성 탐색.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따른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631-639.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2판).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Block, J., & Krc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arver, C. S., & Ganellen, R. J. (1983). Depression and components of self-punitiveness: High standards, self-criticism, and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3), 330.
- Chabrol, H., Rousseau, A., & Callahan, S. (2006). Preliminary results of a scale assessing instability of self-esteem.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8(2), 136-141.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 Dennis, J. P., & Vander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Festinger, I.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anck, E., Raedt, R. D., Dereu, M., & Abbeele, D. V. (2007).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currently depressed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38(1), 75-85.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1), 187-208.
- Greenier, K. D.,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Not all high (or low) self-esteem people are the same. *In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pp. 51-71). Springer, Boston, MA.
- Heydayati, M., Dugas, M. J., Buhr, K., & Franci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and unambiguous information. In *Poster*

-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ur Therapy.
- Howard, M. C. (2017). Measuring self-esteem instability through a single-administration scale: Still a fruitless endeav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522-532.
- Ionescu, T. (2012). Exploring the nature of cognitive flexibility. *New Ideas in Psychology, 30*(2), 190-200.
- Johnson, M. (1998). Self esteem stability: The importance of basic self esteem and competence strivings for the stability of global self estee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2), 103-116.
- Kernis, M. H. (1993).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R.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167-182). New York: Plenum Press.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 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 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rnis, M. H., Brochner, J., & Frankel, B. S. (1989). Self-esteem and reactions to failure: the mediating role of over 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707 - 714.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1190-120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92). Stability of self esteem: Assessment, correlates, and excuse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0*(3), 621-64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 (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80-84.
- Kernis, M. H., Lakey, C. E., & Heppner, W. L. (2008). Secure versus fragile high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76*(3), 477-512.
- Kernis, M. H., Paradise, A. W., Whitaker, D. J., Wheatman, S. R., & Goldman, B. N. (2000). Master of one's psychological domain? Not likely if one's self-esteem is unstab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97-1305.
- Kernis, M. H., Whisenhunt, C. R., Waschull, S. B., Greenier, K. D., Berry, A. J., Herlocker, C. E., & Anderson, C. A. (1998). Multiple facets of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6), 657-668.
- Kuster, F., & Orth, U. (2012). The Long-Term Stability of Self-Esteem: Its Time-Dependent Decay and Nonzero Asympto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77-690.
- Marsh, H. W. (1993). Self-esteem stability and responses to the Stability of Self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3), 253 - 269.
- Noser, A., & Zeigler-Hill, V. (2014). Investing in the ideal: Doe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appearance contingent self-worth and appearance self-esteem in women? *Body Image, 11*(2), 119-125.
- Paradise, A. W., & Kernis, M. H. (1999). *Development of the contingent self-esteem scale.*

-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Georgia.
- Rasmussen, P. R., Willingham, J. K., Glover, T. L. (1996). Self-esteem stability, cynical hostility,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challen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5), 711-718.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The Self, 1*, 205-246.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Y: Springer Verlag.
- Turner, R. H. (1968). The self-conception in social interaction.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1*, 93-106.
- Zeigler-Hill, V. (2006).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mplications for narcissism and self-esteem in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1), 119-144.

원고접수일: 2018년 8월 30일

논문심사일: 2018년 8월 31일

게재결정일: 2019년 4월 10일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for Adult

Min-Kyung Jung      Mi-Kyoung Song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sting tools that explore an individual's stability of self-esteem in multilateral aspects. To effectively pursue this purpose, the paper investigated three structural elements- environmental mastery, stability for evaluation of others, stability of self-worth- rather than limited to just one element. The study preliminary items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survey of 222 adults (aging from 20 to 64). Afterwards, the resulting data was analyzed through item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a preliminary scale- 3 elements with 26 items- was constructed. The main part was conducted with group A of 250 people for EFA and group B of 246 people for confirmatory factor (CFA)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tem analysis, EFA, CFA and reliability analysis. After the analysis, the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for Adult- having 3 elements with 14 items- was developed. After checking the scale's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the scores distribution for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for Adult with 14 items was confirmed.

*Keywords:*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 부 록 1

### 성인 자존감 안정성 척도

※ 다음 문항은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특성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 문 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인다.                                 | 1         | 2         | 3      | 4      | 5      |
| 2   | 나는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평가한다.                                | 1         | 2         | 3      | 4      | 5      |
| 3   | 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면 극복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 4   | 나는 내 자신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6   |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7   |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줄 안다.                      | 1         | 2         | 3      | 4      | 5      |
| 8   | 나는 나에게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쓴다.                   | 1         | 2         | 3      | 4      | 5      |
| 9   |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 나의 자존감은 변한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주변 자원들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1  |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 1         | 2         | 3      | 4      | 5      |
| 12  | 어떤 날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만, 또 어떤 날은 내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럽다.                        | 1         | 2         | 3      | 4      | 5      |
| 13  | 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4  | 내 말이나 행동이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워진다.                    | 1         | 2         | 3      | 4      | 5      |

\* 역문항 : 1, 2, 4, 5, 6, 8, 9, 12, 14